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0. Vol. 22, No. 2, pp.15-30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정대* · 이선정** · 신효식***
전북 고창중학교*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Effects of Variables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y Middle School Students

Lee, Jeong-Dae* · Lee, Seon-Jeong** · Shin, Hyo-Shick***
*Jeonbuk Gochang Middle School **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intended to examine by variable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ovide basic materials useful for their education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y finding out variables influencing equality consciousness. The subjects were the 1,201 students who studied at middle schools in Jeonllabuk-do.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e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Cronbach's α ,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ean value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was 3.89 in the whole, 3.88 in home life, 3.92 in school life, 4.04 in the workplace, and 3.70 in social and cultural life, suggesting high value in all areas. While the workplace and the school life showed higher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an the whole, the home life and social and cultural life showed lower consciousness.

2. The who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ere influenced by sex, mother'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homeroom teacher'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 enough schooling, desirable school types, perception of abolition of family-head system, and social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ere explained about 32% by these variables.

1) 교신저자: Shin, Hyo-Shick,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1, Fax: 062-530-2529, E-mail: hsshin@jnu.ac.kr
본 논문은 2009년도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Key words: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는 21세기 지식중심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양성평등 실현의 거센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습이나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식과 문화는 여성을 보조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여 사회 활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해 왔고, 여성이 제도권의 중심에 서는 것을 저해해 왔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제도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2007).

과거 여성의 취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나 가정 안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달라졌다(김양희, 이수연, 김혜영, 2002). 그러나 새로운 사회변화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허용적인 반면 남성들이 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여전히 저항적이다(Twenge, 1997).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며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 폭넓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개인에게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장점을 요구하여 이를 통합시킨 양성성을 바람직한 성역할로 제시하고 있다(Bem, 1975). 즉, 양성성의 사회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보다 훨씬 기능적이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높음을 감안할 때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은 가급적 일찍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며, 청소년기에 성(gender)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igle, 1977). 청소년기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요즈음 고등학생보다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전 과정에 있는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여 맞춤식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금의 중학생들이 주역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편견 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타고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지만 특히 생활을 고유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정과교육의 특성 및 성격이 양성평등의 가치 및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간을 양성하려는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보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다루기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왕석순, 2000). 또한 가정과교육이 남녀간의 서로 다른 의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교과이며,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인 남녀차별 의식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가정생활을 평등한 삶의 영역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가장 적절한 교과라는 점에서도(정해숙, 2001) 가정과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기존 세대의 가치에 대해 저항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압력에 민감한 시기이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기의 양성평등의식을 이해하고 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개인의 성 정체감은 유아기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만큼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양성평등의식의 문제는 발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고 그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은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도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가치관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립의 태도와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 자극이 필요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며, 이러한 성장 발달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작용하여 개인의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맡게 되며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기대되는 성역할을 하고 상호작용 받으면서 강화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성역할에 적절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안필순, 1994). 우리의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학교생활 경험, 교사 및 친구의 의식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차별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가 강화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교사들의 양성 평등 의식 수준과 평등 의식의 유무는 학생들의 평등의식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윤명옥, 2002). 사회가 성에 따른 차등없이 공평한 사회여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고, 호주제와 같은 남성 우월과 여성 경시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었던 제도의 폐지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은 그들이 속해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습득하고 수행하게 되므로 이 모든 영향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김미숙, 2003; 김미희, 2005; 김의정, 2008; 김철영, 2005; 엄임진, 2005; 이두환, 2004; 이정섭, 2007)이 성별과 학교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가족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부의 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김양희, 정경아, 1999; 김영숙, 정복례, 2007; 김영희, 2007; 오지연, 2009), 형제관계(최선주, 2004), 조부모 동거여부와 부모의 맞벌이 여부(박현숙, 2003; 이정섭, 2007) 등이고, 학교환경 변인으로 교사의 특성(오세창, 2009), 교육활동과 프로그램(박수은, 2005; 서정임, 2006; 윤주영, 2005; 정혜윤, 2001; 최미경, 2007), 사회환경 변인으로는 사회의 양성평등정도 인식(박현숙, 2003)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배경변인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환경이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양성평등의식과 개별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의식 발달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닌 미시적 생태체계 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사회환경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2)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관련문헌 고찰

1. 양성평등의식의 개념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y consciousness)은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또한 현 사회의 불평등한 성차별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며 성차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개념이다(김양희 등, 2002).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다. 성역할 의식이 남녀별로 어떠한 형태나 태도가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기대치(Anderson, 1983)로서 남녀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양성평등의식은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태도, 자유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성평등의식 관련 변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영역별 차이를 보면 직업생활 영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 영역, 사회문화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김양희 등, 2002). 선행연구들(김영숙, 정복례, 2007; 노운택, 2007; 무주중학교, 2001; 문선자, 2006; 박현숙, 2003; 변지원, 2006; 심영란, 2005; 이소연, 2005; 이정섭, 2007; 조기현, 2004; 최동숙, 전경숙, 2006)을 살펴보면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반면, 다수의 여학생이 프러포즈는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의 유교적인 성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권인숙, 2007). 지역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학생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농촌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의 학생들에 비해 더 양성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문화생활 영역이었다(김양희 등, 2002; 김희옥, 2002; 박현숙, 2003).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모두 도시와 농촌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김양희 등, 2002; 김희옥, 2002), 이는 환경요인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족환경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과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은 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아(김영숙, 정복례, 2007)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진(2009)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간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와 자녀간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여아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은 높게 나타났고 박현숙(2003)의 연구에서는 독자인 경우에 전반적인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았으나 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형제구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다(이소연, 2005). 즉 동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동거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정섭(2007)의 연구에서는 조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소연(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은 학교생활영역을 제외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직업부분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 내 평등의 기본조건이 부부의 평등한 경제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어머니의 경제활동 모습이 자녀에게 성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였다.

학교환경변인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박성희(2006)와 이소연(2005)은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자 자신이 양성평등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담임교사가 높은 변혁적 지도성을 지니게 되면 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다는 오세창(2009)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 차이에 관한 윤명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고 여교사, 연령이 낮은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 교사의 배경변인들이 그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연관되며, 이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에 반영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최미경, 2007),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김분희, 2009; 박수은, 2005).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윤주영(2005)의 연구에서도 양성평등교육정도와 양성평등의식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교육의 시기는 학교 졸업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환경 변인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연구한 박현숙(2003)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남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하위영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3. 가정과교육과 양성평등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의 실천은 '양성 평등한 교육'과 '양성 평등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양성 평등한 의식'은 성차별 비판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비판적인 양성평등 교육이란 학교 교육에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지지는 않으므로 학교 밖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관례나 제도를 타파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의지 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이다.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현실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실천과제를 생활속에서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정적인 틀에 매여서 세상을 보는 사람에 비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미숙(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교과 선호도와 양성평등의식 함양 기여도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은 높게 나타났고, 배은주와 이송자(2005)의 연구에서도 가정과적용 양성평등 수업이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교육이 양성평등 의식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교육을 담당하므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의 구성으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와 함께 실천 비판적인 의식교육을 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사미숙, 2003).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전주) 3개 학교, 읍·면 지역(고창) 3개 학교 등 6개 중학교 1, 2, 3학년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 결과 중복되었거나 응답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1,300명에게 배부하여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99부를 제외한 1,20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지역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01)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600(50.0)	지역	읍·면지역	723(60.2)
	여자	601(50.0)		중소도시	478(39.8)
학년	1학년	387(32.2)	학교 형태	남녀공학	566(47.1)
	2학년	429(35.7)		남학교	339(28.2)
	3학년	385(32.1)		여학교	296(24.6)
생활 수준 (n=1,090)	상	393(33.0)	형제 관계	남자형제	203(16.9)
	중	655(55.0)		여자형제	168(14.0)
	하	142(12.0)		이성형제	771(64.2)
				없음	59(4.9)
종교 (n=1,199)	기독교	456(38.0)	출생 순위	첫째	489(40.7)
	천주교	89(7.4)		중간	192(16.0)
	불교	116(9.7)		막내	461(38.4)
	없음	513(42.8)		외동	59(4.9)
	기타	25(2.1)			
부연령 (n=1,194)	30대	59(4.9)	모연령 (n=1,178)	30대	264(22.4)
	40대	963(80.7)		40대	862(73.1)
	50대	166(13.9)		50대	51(4.3)
	60대 이상	6(.5)		60대이상	3(.3)
부학력 (n=1,174)	중학교졸업 이하	76(6.5)	모학력 (n=1,160)	중학교졸업 이하	84(7.2)
	고등학교졸업	531(45.2)		고등학교졸업	647(55.8)
	전문대졸업	110(9.4)		전문대졸업	96(8.3)
	대학교졸업 이상	457(38.9)		대학교졸업 이상	333(28.7)
부직업 (n=1,190)	고위관리자/전문가	136(11.4)	모직업 (n=1,183)	고위관리자/전문가	83(7.0)
	행정/관리/사무종사자	358(30.1)		행정/관리/사무종사자	182(15.4)
	판매/서비스종사자	205(17.2)		판매/서비스종사자	261(22.1)
	농업/임업/축산업/어업종사자	179(15.0)		농업/임업/축산업/어업종사자	119(10.1)
	기능원	198(16.6)		기능원	41(3.5)
	단순노무종사자	22(1.8)		단순노무종사자	24(2.0)
	미취업	25(2.1)		미취업	351(29.7)
	기타	67(5.6)		기타	122(10.3)
가족 형태 (n=1,199)	확대가족	147(12.3)	부모 구성	양부모	1168(97.3)
	핵가족	1052(87.7)		한부모	33(2.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각 변수별 전체 사례수(N)차이

2) 가족환경 변인

가족환경 변인은 형제구성, 가족형태, 부양성평등정도, 모양성평등정도, 모직업유무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학교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은 담임 성별, 담임 양성평등 정도, 친구 양성평등 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양성평등의식교육 충분도, 바람직한 학교 형태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사회환경 변인

사회환경 변인은 호주제 폐지 인지, 사회 양성평등 정도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문항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고안한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등, 2002) 중 예비조사에서 영역별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문항을 제외한 40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가정생활 영역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집안일 하기, 부모/부부 상호간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태도,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한다(α=.79).

(2) 학교생활 영역

학교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녀 학생의 지적 능력과 잠재력, 학교교육의 기회, 진로교육, 체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한다(α=.82).

(3) 직업생활 영역

직업 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 남자와 여자의 직업 진로와 적성, 직업 현장에서의 남녀간 역할과 행동규범, 권한과 관계,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한다(α=.89).

(4) 사회문화생활 영역

가정이나 직업 영역 이외의 일반적 사회문화 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녀학생의 대인관계, 성행동, 사회에서의 역할과 행동 규범, 미디어와 성 평등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들을 포함한다(α=.75).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양성평등 의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사회환경 변인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 차이

M(SD)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t
가정생활 영역	3.56(.59)	4.20(.54)	3.88(.65)	-19.29***
학교생활 영역	3.62(.63)	4.22(.53)	3.92(.65)	-18.18***
직업생활 영역	3.68(.71)	4.40(.56)	4.04(.73)	-19.62***
사회문화생활 영역	3.45(.63)	3.95(.61)	3.70(.67)	-14.27***
전체	3.58(.57)	4.19(.49)	3.89(.61)	-20.14***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 영역 3.88, 학교생활 영역 3.92, 직업생활 영역 4.04, 사회문화생활 영역 3.70, 전체 3.89로 중간값(3.00)보다 높았고 여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임진(2005)의 연구에서 전체 양성평등의식의 평균값이 3.00, 문선자(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값이 3.07, 최동숙과 전경숙(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값이 3.32, 노운택(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값이 3.61로 본 연구의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전체보다 높은 영역은 학교생활과 직업생활이고, 낮은 영역은 사회문화생활과 가정생활이다. 특히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았는데 전반적인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문화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남녀학생의 대인관계, 성행동, 사회에서의 역할과 행동 규범, 미디어와 성 평등성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의식이 성행동이나 문화규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김양희 등, 2002).

중학생은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 남자와 여자의 직업진로와 적성, 직업 현장에서의 남녀간 역할과 행동규범, 권한과 관계, 성차별 등에서의 직업생활 영역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전체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박현숙, 200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김양희 등, 2002; 김영숙, 정복례, 2007; 노운택, 2007; 무주중학교, 2001; 문선자, 2006; 박현숙, 2003; 변지원, 2006; 심영란, 2005; 이소연, 2005; 이정섭, 2007; 조기현, 2004; 최동숙, 전경숙,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보다 높게 나타난 김미숙(2003), 김미희(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2.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계수는 2.19-1.03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1.92-2.01로 2에 가까워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1)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β=.40, p<.001), 모 양성평등 정도(β=.12, p<.001), 담임 양성평등 정도(β=.06, p<.05), 바람직한 학교형태(β=-.07, p<.01), 호주제 폐지 인지(β=.08, p<.01), 사회 양성평등 정도(β=-.05, p<.05)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을 2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의 형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2)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β=.45, p<.001), 모 양성평등 정도(β=.11, p<.01), 담임 양성평등 정도(β=.11, p<.01), 양성평등의식 교육 충분도(β=-.08, p<.01), 바람직한 학교 형태(β=-.06, p<.05), 호주제

〈표 3〉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가정생활영역-양성평등의식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6.36	.40***	1.51
	지역	- .33	- .03	1.12
가족환경변인	형제 구성(b1)	- .48	- .03	2.19
	형제 구성(b2)	.09	.01	2.04
	형제구성(b3)	- .19	- .01	1.25
	가족형태	.23	.01	1.04
	부 양성평등 정도	- .32	- .05	2.10
	모 양성평등 정도	.82	.12**	2.15
	모직업유무	.12	.01	1.03
학교환경변인	담임성별	- .23	- .02	1.07
	담임 양성평등 정도	.37	.06*	1.29
	친구 양성평등 정도	.19	.03	1.40
	학교생활만족도	.22	.03	1.16
	양성평등교육충분도	- .30	- .05	1.13
	바람직한 학교형태	-1.29	- .07**	1.04
사회환경변인	호주제 폐지 인지	.49	.08**	1.05
	사회 양성평등 정도	-.36	- .05*	1.14
F		25.49***		
R^2		.28		
Durbin-Watson		1.93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지역(중소도시-1, 읍면지역-0)
- 형제구성(b1: 남자형제-1, 그 외-0 / b2: 여자형제-1, 그 외-0 / b3: 이성형제-1, 그 외-0 / b4: 형제없음-1, 그 외-0)
- 가족형태(핵가족-1, 확대가족-0)
- 담임성별(여자-1, 남자-0)
- 바람직한 학교형태(남녀분리-1, 남녀공학-0)

〈표 4〉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학교생활영역-양성평등의식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5.91	.45***	1.51
	지역	- .24	- .02	1.12
가족환경변인	형제 구성(b1)	- .09	- .01	2.19
	형제 구성(b2)	.15	.01	2.04
	형제구성(b3)	- .33	- .01	1.25
	가족형태	- .67	- .03	1.04
	부 양성평등 정도	- .16	- .03	2.10
	모 양성평등 정도	.77	.11**	2.15
	모직업유무	- .28	- .02	1.03
학교환경변인	담임성별	- .46	- .03	1.07
	담임 양성평등 정도	.70	.11**	1.29
	친구 양성평등 정도	.18	.03	1.40
	학교생활만족도	.22	.03	1.16
	양성평등교육충분도	- .49	- .08**	1.13
	바람직한 학교형태	-1.10	- .06*	1.04
사회환경변인	호주제 폐지 인지	.49	.09***	1.05
	사회 양성평등 정도	- .68	- .10***	1.14
F		26.87***		
R^2		.29		
Durbin-Watson		2.00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지역(중소도시-1, 읍면지역-0)
- 형제구성(b1: 남자형제-1, 그 외-0 / b2: 여자형제-1, 그 외-0 / b3: 이성형제-1, 그 외-0 / b4: 형제없음-1, 그 외-0)
- 가족형태(핵가족-1, 확대가족-0)
- 담임성별(여자-1, 남자-0)
- 바람직한 학교형태(남녀분리-1, 남녀공학-0)

폐지 인지(β=.09, p<.001), 사회 양성평등 정도(β=-.10, p<.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을 29%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3)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β=.47, p<.001), 모 양성평등 정도(β=.10, p<.01), 담임 양성평등 정도(β=.09, p<.01), 바람직한 학교형태(β=-.06, p<.05), 호주제 폐지 인지(β=.09, p<.001), 사회 양성평등 정도(β=-.08, p<.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을 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4)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직업생활영역-양성평등의식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6.97	.47***	1.51
	지역	- .27	- .02	1.12
가족환경변인	형제 구성(b1)	- .03	- .00	2.19
	형제 구성(b2)	.01	.00	2.04
	형제구성(b3)	- .37	- .01	1.25
	가족형태	- .81	- .04	1.04
	부 양성평등 정도	- .06	- .01	2.10
	모 양성평등 정도	.76	.10**	2.15
	모직업유무	- .29	- .02	1.03
학교환경변인	담임성별	- .33	.02	1.07
	담임 양성평등 정도	.60	.09**	1.29
	친구 양성평등 정도	.21	.03	1.40
	학교생활만족도	.19	.02	1.16
	양성평등교육충분도	- .17	- .02	1.13
	바람직한 학교형태	-1.19	- .06*	1.04
사회환경변인	호주제 폐지 인지	.55	.09***	1.05
	사회 양성평등 정도	- .64	- .08**	1.14
F		28.18***		
R^2		.30		
Durbin-Watson		2.01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지역(중소도시-1, 읍면지역-0) - 형제구성(b1: 남자형제-1, 그 외-0 / b2: 여자형제-1, 그 외-0 / b3: 이성형제-1, 그 외-0 / b4: 형제없음-1, 그 외-0)
- 가족형태(핵가족-1, 확대가족-0) - 담임성별(여자-1, 남자-0) - 바람직한 학교형태(남녀분리-1, 남녀공학-0)

〈표 6〉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사회문화생활영역-양성평등의식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4.38	.33***	1.51
	지역	.17	- .01	1.12
가족환경변인	형제 구성(b1)	.36	- .02	2.19
	형제 구성(b2)	.60	.04	2.04
	형제구성(b3)	- .50	- .02	1.25
	가족형태	- .52	- .03	1.04
	부 양성평등 정도	- .09	- .01	2.10
	모 양성평등 정도	.49	.06	2.15
	모직업유무	- .46	- .03	1.03
학교환경변인	담임성별	.07	.01	1.07
	담임 양성평등 정도	.51	.08**	1.29
	친구 양성평등 정도	.43	.06*	1.40
	학교생활만족도	.13	.02	1.16
	양성평등교육충분도	- .32	- .05	1.13
	바람직한 학교형태	-1.19	- .07*	1.04
사회환경변인	호주제 폐지 인지	.66	.12***	1.05
	사회 양성평등 정도	-1.00	- .14***	1.14
F		18.47***		
R^2		.22		
Durbin-Watson		1.92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지역(중소도시-1, 읍면지역-0)
- 형제구성(b1: 남자형제-1, 그 외-0 / b2: 여자형제-1, 그 외-0 / b3: 이성형제-1, 그 외-0 / b4: 형제없음-1, 그 외-0)
- 가족형태(핵가족-1, 확대가족-0)
- 담임성별(여자-1, 남자-0)
- 바람직한 학교형태(남녀분리-1, 남녀공학-0)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β=.33, p<.001), 담임 양성평등 정도(β=.08, p<.01), 친구 양성평등 정도(β=.06, p<.05), 바람직한 학교형태(β=-.07, p<.05), 호주제 폐지 인지(β=.12, p<.001), 사회 양성평등 정도(β=-.14, p<.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을 22%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5)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전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전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β=.48, p<.001), 모 양성평등 정도(β=.11, p<.001), 담임 양성평등 정도(β=.09, p<.001), 양성평등의식 교육 충분도(β=-.05, p<.05), 바람직한 학교형태(β=-.07, p<.01), 호주제 폐지 인지(β=.11, p<.001), 사회 양성평등 정도(β=-.11, p<.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32% 설명해 주고 있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받은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중학생의 전체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표 7〉 양성평등의식 전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양성평등의식 전체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23.60	.48***	1.51
	지역	- .67	- .01	1.12
가족환경변인	형제 구성(b1)	- .24	- .00	2.19
	형제 구성(b2)	.84	.02	2.04
	형제구성(b3)	-1.39	- .01	1.25
	가족형태	-1.77	- .02	1.04
	부 양성평등 정도	- .63	- .03	2.10
	모 양성평등 정도	2.85	.11***	2.15
	모직업유무	- .91	- .02	1.03
학교환경변인	담임성별	- .96	- .02	1.07
	담임 양성평등 정도	2.18	.09***	1.29
	친구 양성평등 정도	1.01	.04	1.40
	학교생활만족도	.76	.03	1.16
	양성평등교육충분도	-1.28	- .05*	1.13
	바람직한 학교형태	-4.77	- .07**	1.04
사회환경변인	호주제 폐지 인지	2.10	.11***	1.05
	사회 양성평등 정도	-2.68	-.11***	1.14
F		31.70***		
R^2		.32		
Durbin-Watson		1.97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지역(중소도시-1, 읍면지역-0) · 형제구성(b1: 남자형제-1, 그 외-0 / b2: 여자형제-1, 그 외-0 / b3: 이성형제-1, 그 외-0 / b4: 형제없음-1, 그 외-0)
- 가족형태(핵가족-1, 확대가족-0) · 담임성별(여자-1, 남자-0) · 바람직한 학교형태(남녀분리-1, 남녀공학-0)

V.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경향과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전체 3.89, 가정생활 영역 3.88, 학교생활 영역 3.92, 직업생활 영역 4.04, 사회문화생활 영역 3.70으로 모두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전체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로 높으나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의식이 성행동이나 문화규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사회문화생활 영역 양성평등의식에 사회양성 평등 정도가 주요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불평등적인 환경들을 변화시켜 사회가 그들에게 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야만 양성평등의식 또한 고양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편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전체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수준 차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서 남녀 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미래에 학생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교과는 양성평등의식의 중요한 영역인 가족생활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7)의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가정의 의의와 역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가정의 일과 직업과의 상호 관련성 및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양성평등한 가족 역할 분담 등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성평등 정도와 담임 교사의 양성평등 정도는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여성가족부(2005)가 실시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과 학부모 모두 가정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라 자원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일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가정에서부터 불공평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성평등의식이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사회적 고정관념과 의식은 쉽사리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양성평등과 관련한 호주제 폐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았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남녀 발달 차이로 인한 수행평가와 입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녀분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

년의 인성교육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사회양성평등 정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은 높았다. 이는 박현숙(2003)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가 남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인식할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높은데 반해 사회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수준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라북도 중학생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양성평등의식을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사회환경 변인을 양적 조사인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양적조사로써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법,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참여 연구법, 관찰법과 같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조사방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권인숙(2007).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 서울: 청년사.

김미숙(2003).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희(2005).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분희(2009).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이수연・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42.

김영숙・정복례(2007).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2)**, 310-319.

김영희(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양성평등의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의정(2008).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영(2005). 남녀공학, 별학이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옥(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운택(2007).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과의 상관 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무주중학교(2001).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문선자(2006).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선호도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06). 남자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은(2005).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성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숙(2003).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은주, 이송자(2005).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 17(1), 1-13.

변지원(2006). 고교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MMPI(다면적 인성검사) 특징.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미숙(2003). 가정교과 교육과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임(2006).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성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영란(2005).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필순(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임진(2005).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오세창(2009).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지연(2009).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석순(2000). 고등학교 가정과「가족」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77-91.

윤명옥(2002).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주영(2005).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 의식간의 관계 : 제주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탐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2009). 어머니와 아동의 성태도와 양성평등의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두환(2004). 학교급 및 유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연(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 실태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섭(2007).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해숙(2001). 가정과교육에서의 양성평등.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5-22.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기현(2004).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동숙, 전경숙(2006). 중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 교과 선호도 및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39-54.

최미경(2007).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남녀평등의식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주(2004).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2007). 양성평등교수-학습자료 개발·적용을 통한 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양성평등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Anderson, M. L.(1983). *Thinking about women : Sociological and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 : Macmillan

Bem, S. L.(1975). Sex 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Bigle, R. S.(197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53-69.

Twenge, J. M.(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 A meta-analysis. *Sex Roles, 36,* 241-273.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경향과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전주) 3개 학교, 읍·면지역(고창) 3개 학교 등 6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학생 120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전체 3.89, 가정생활 영역 3.88, 학교생활 영역 3.92, 직업생활 영역 4.04, 사회문화생활 영역 3.70으로 모두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전체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1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일